

「죽은 이에게 바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예술가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티앙 볼탕스키<sup>1</sup>

컬렉션3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Lifetime’과 함께 기획되어 동시에 개최하는 전시회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볼탕스키의 작품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 이들을 위해 현정된 것입니다. 이번 컬렉션 전시회는 ‘보이지 않는 것’을 키워드로 세 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여러 작가가 ‘죽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작가와 함께’라는 주제로 그들이 자화상이나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작품과 자신 간의 갈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공(天空)으로’라는 주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다른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입니다.

#### Part1: 죽은 자들을 위하여

전시장 입구에 놓여 있는 기묘한 큰 검정 물체는 미국의 대지 예술가로 알려진 마이클 하이저의 〈제물(긁개)〉(1988)입니다. 긁개는 어떤 것을 긁어내는데 사용하는 석기입니다. 이 작품명을 통해 선사시대의 인류가 자연의 위엄에 속수무책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두려운 존재를 위해 인간의 몸을 바치는 처참한 의식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작가로서 하이저의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저명한 인류학자였던 부친 로버트 하이저와 함께한 탐사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거석(巨石) 문화의 유물로부터 나오는 태고(太古)의 외침에 영감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앤디 워홀의 작품 〈메릴린〉(1967)은 메릴린 먼로의 죽음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워홀이 유명해지고 싶어 여배우의 이미지를 이용하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작품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과 직접 부딪치는 기회가 드물지라도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죽음의 은유’를 끊임없이 퍼붓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많은 고전 예술작품들은 인간이 끊임없이 죽음의 이미지와 직면한다는 사실을 다루어 왔습니다.

#### Part2: 작가와 함께

마르셀 뒤샹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 ‘죽는 것은 언제나 타인들이다’라는 문구와 같이 사실상 작가는 ‘자신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마주하기 힘듭니다. 이 섹션은 오늘날의 작가들이 종교적인 주제와 자신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전위예술운동의 하나인 ‘모노파’의 작가, 요시다

가츠로와 이누마키 겐지는 소재와의 거리감을 탐색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요시다의 ‘촉(触)’이라는 작품군은 거대한 암석이 그려진 듯한 큰 대상물이 특유의 유연함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모티브로 그리는 와중에 연필의 흙연가루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표현법의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sup>2</sup> 이누마키의 〈작품〉(1992)은 캔버스에 끈을 붙이고 물감을 칠하여 조금 말랐을 때 끈을 떼어내는 행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가늘고 긴 실과 철사라는 최소한의 소재로 입체작품을 제작한 이누마키 역시 소재와 최소한의 관계를 통해 독자적인 표현을 이룩하였습니다.

예술가가 스스로를 다루는 모든 작품이 자화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시하라 토모아키의 흐릿한 자화상은 사진 매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교과서적인 예입니다. 사진 동인지인 『PROVOKE』(1969년 창간)에 참가한 나카하라 다쿠마와 모리야마 다이도와 같은 사진가들의 표현과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포토페인팅에서도 아웃포커스를 이용하였음이 확인되지만 자화상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한 이시하라의 표현법은 상당히 참신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Part3: 천공으로

과거의 많은 작가는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세계관을 표현해왔습니다. 여기서는 그와 관련한 관점에서 ‘천공(天空)’을 대상으로 한 작품을 살펴보자 합니다.

히다카 리에코의 작품은 밑에서 위로 나뭇가지를 보고 그린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아주 옛날인 신화시대의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천공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상상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표현은 배경을 그리지 않는 전통적인 일본 회화에 의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러 배경을 그리지 않는 그 공간은 회화로서 충분히 발휘된 공간이지만 물질적인 실체인 종이로 존재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상하 대칭으로 엄격한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된 스기모토 히로시의 바다 작품에서는 하늘이 표현된 상반부는 생명이 탄생한 명왕누대(冥王累代)의 역사까지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노무라 히토시가 표현한 태양의 궤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를 천공의 시점에서 내려보고 있는 듯한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해 줍니다.

나카이 야스유기(국립국제미술관 부관장 겸 학예과장)

“我觉得作为艺术家的我们的工作就是进行献给死者的仪式。”

-크리스티앙·볼탕스키<sup>1</sup>

收藏展3的策划是为了配合同期举办的“克里斯蒂安·波尔坦斯基—Lifetime展”。就像在开篇写到的那样，波尔塔斯基的作品是献给从这个世界消失的人们的。因此，收藏展3是以“看不见的东西”为关键词，围绕着三个主题构成的。第一个主题“致死者”，将通过作品介绍各种作家是如何涉及‘死’的。接下来的主题“与作者”的展示作品，是这些表现者们通过自画像这种非直接的方法，表现出来的与作品博弈的自己。在最后的“向天空”的主题中，通过展示的作品我们可以看到作家们对与我们生活的场所不同的、另一个世界的独特表现。

#### Part1:致死者

会场入口摆放的、奇妙的黑色巨大物体，是美国大地艺术家迈克尔·梅泽的《祭品(刮刀)》(1988)。刮刀是用来刮皮的石器。这个名称可以让我们想到的是史前时代的人类对自然界的威力无能为力时，把人的身体献给令人不得不敬畏的存在的凄惨仪式。对艺术家梅泽的创作产生巨大影响的是他陪同父亲、著名的人类学家罗伯特·梅泽去各处的旅行调查。也许，他从巨石文化的遗物中听到了太古的呐喊吧。

在第一个展示室摆放的安迪·沃霍尔的作品《玛丽莲》(1967)，很多人都知道它是以玛丽莲·梦露的死为契机而产生的作品。虽然沃霍尔是为了出名才有了这个作品的构想，但在我们这个被认为是与“死”的接触已经从日常中消失了的现代社会，通过这种媒介，可以让我们意识到，实际上我们是被种种的“死的隐喻”包围着的。也不需要再重新指出很多历史上的艺术作品都是宗教画的这一事实，人们一直以来都是接触着死的表象的。

#### Part2:与作者

就像马赛尔·杜尚的墓志铭上刻着的“死的总是别人”，作者并不能面对“自己的死亡”的这一客观事实。那么，当作家离开宗教的主题或是自己的“死亡”问题时，会怎样表现应该面对的自己呢？我们就通过现代作家的表现来介绍这个主题。

吉田克朗与狗卷贤二，是众所周知的、与战后日本前卫运动之一的“物派”

有关的作家。他们在推测与素材的距离感中，运用自己的手的作业创造出作品。在吉田的《触》的作品群中，仿佛巨石一般的大对象、是运用他独特的柔和的浓淡效果表现出来的。据作者本人说，在以手为对象的描绘的过程当中，从开始的铅笔而转向用黑铅粉，是他的意识转移到了这样的表现手法。<sup>2</sup>狗卷的《作品》(1992)，是在画布上涂上颜料、在颜料中埋上绳子，等稍微干了以后剥离掉绳子，通过这样的行为作品就完成了。用细线与金属丝这种最小限度的素材创作出立体作品的狗卷，也是与素材发生了所需要的最小限度的关系下，完成了他独特的表现。

说起以作者本身为主题的作品，就必须提到自画像。石原友明用不聚焦的方式拍摄的自己的照片，这种发挥了照片这种媒介特性的艺术表现，可以说是教科书性质的正确。而中平卓馬、森山大道的《provoke》(1969年创刊)的摄影家们的表现，以及格哈德·里希特的照片绘画中也运用了不聚焦的方式，因此直接模糊了自画像的石原的表现，倒也可以说是崭新的手法。

#### Part3:向天空

与“生”、“死”的主题同时，过去的很多作家们也挑战过“世界观”的表现。通过这一表现的角度，介绍以“天空”为对象的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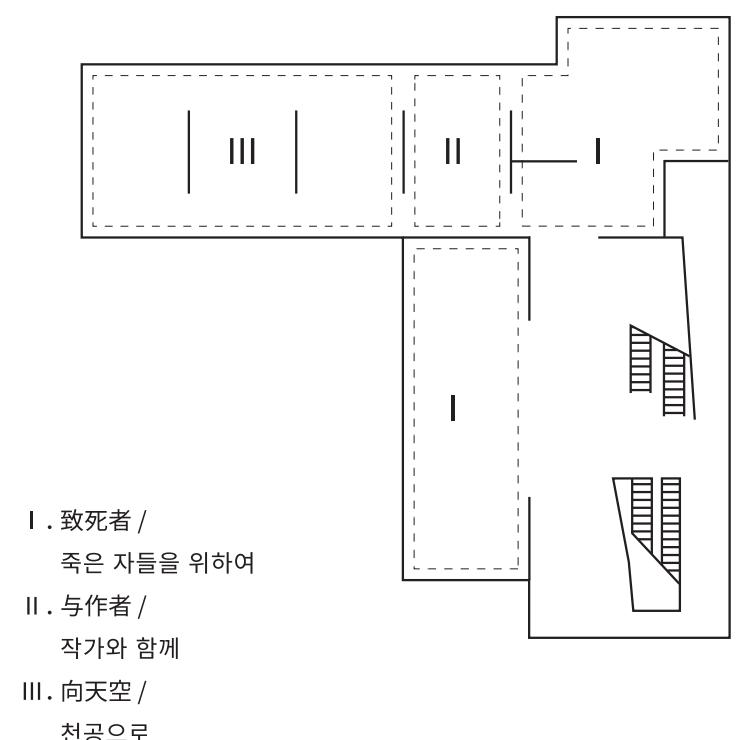
日高理惠子的作品，虽然只表现了对树枝的仰望，而它所呈现的世界却可以让我们追随体验到，远古时代人们仰望天空时，把天空想象成超自然的世界。也许，它与日本画一直都充分意识到了描绘对象的背景存在没有画上的部分的这一历史有关。也就是说，作为绘画来说，虽然是被充分发挥的绘画空间，却以作为实体材质的纸的存在，确保了鉴赏者的自由度。

杉本博司的上下对称的严格的几何学形态的海的表现，上半部是天空，让我们感受到那是有生命诞生的、冥古宙的历史的意象。野村仁的太阳的轨迹，给我们带来从天空的视角眺望我们存在的场所的、这种不可思议的感受。

中井康之(国立国际美术馆副馆长兼学艺课长)

<sup>1</sup>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스기모토 히로시 「대담」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 Lifetime』 전 카탈로그, 2018년, 수성사, p.104

<sup>2</sup> 요시다 가츠로 「손 이야기」 『오늘날의 작가들 IV — 야마모토 마초미치 / 요시다 가츠로 전』 카탈로그, 1992년, 가가와현립근대미술관, p.4



2019.2.9 — 5.6

主办 国立国际美术馆 赞助单位 大金工业现代美术振兴财团  
주최 국립국제미술관 협찬 다이キン공업 현대미술 진흥재단

コレクション3  
イも見えぬ  
メジ  
の  
見  
え  
の  
な  
い  
ジ

Collection 3:  
Image of  
something invisible  
컬렉션 3: 보이지 않는 것의 이미지  
收藏 3: 看不见的东西的意象

国立国際美術館  
THE NATIONAL MUSEUM OF ART, OSAKA

作家名 작가명	生卒年份 생몰년도	作品名 작품명	制作年代 제작년도
<b>I 致死者 / 죽은 자들을 위하여</b>			
迈克尔·梅泽 / 마이클 하이저	1944 -	祭品(刮刀) / 제물(들긁개)	1988
安迪·沃霍尔 / 앤디 워홀	1928 - 1987	4英尺的花 / 4피트의 꽃	1964
安迪·沃霍尔 / 앤디 워홀	1928 - 1987	出自版画集『玛丽莲』[2][3][5][6][8][9] / 판화집『마릴린』에서 [2][3][5][6][8][9]	1967
马克·奎恩 / 마크 퀸	1964 -	美女与野兽 / 미녀와 야수	2005
道格与麦克兄弟 / 마이크 앤 더그 스탠	1961/1961 -	锯齿莫纳 / 잘게 잘린 모나리자	1985-88
工藤哲巳 / 구도 데즈미	1935 - 1990	放射能的养殖(小的温室、橙子、绿) / 방사능에 의한 양식(작은 온실, 오렌지, 녹색)	1968
工藤哲巳 / 구도 데즈미	1935 - 1990	水槽中的你的肖像 / 수조 케이스 속에 있는 너의 초상	1970-80
工藤哲巳 / 구도 데즈미	1935 - 1990	危机中的艺术家的肖像 / 위기에 처한 예술가의 초상	1976
工藤哲巳 / 구도 데즈미	1935 - 1990	在遗传染色体的雨中等待启示 / 유전염색체의 비 안에서 계시를 기다림	1979
工藤哲巳 / 구도 데즈미	1935 - 1990	人类与晶体管的共生 / 인간과 트랜지스터의 공생	1980-81
内藤礼 / 나이토 레이	1961 -	namenlos / namenlos	1993
内藤礼 / 나이토 레이	1961 -	namenlos / namenlos	1993
内藤礼 / 나이토 레이	1961 -	namenlos-自画像 / namenlos-자화상	1993
内藤礼 / 나이토 레이	1961 -	namenlos / namenlos	1993
内藤礼 / 나이토 레이	1961 -	namenlos / namenlos	1993
内藤礼 / 나이토 레이	1961 -	namenlos / namenlos	1993
内藤礼 / 나이토 레이	1961 -	为了死者的枕头 / 죽은자를 위한 배개	1997
内藤礼 / 나이토 레이	1961 -	为了死者的枕头 / 죽은자를 위한 배개	2002
内藤礼 / 나이토 레이	1961 -	无题 / 무제	2009
内藤礼 / 나이토 레이	1961 -	无题 / 무제	2009
内藤礼 / 나이토 레이	1961 -	无题 / 무제	2009
野口里佳 / 노구치 리카	1971 -	人与鸟 #1 / 사람과 새 #1	2010
野口里佳 / 노구치 리카	1971 -	人与鸟 #2 / 사람과 새 #2	2010
野口里佳 / 노구치 리카	1971 -	人与鸟 #3 / 사람과 새 #3	2010
野口里佳 / 노구치 리카	1971 -	人与鸟 #4 / 사람과 새 #4	2010
野口里佳 / 노구치 리카	1971 -	人与鸟 #5 / 사람과 새 #5	2010
盐田千春 / 시오타 치하루	1972 -	我还没看过自己的死 / 나의 죽음은 아직 본 적이 없다	1998/2007
盐田千春 / 시오타 치하루	1972 -	试和回家 / Try and Go Home	1998/2007
盐田千春 / 시오타 치하루	1972 -	睡觉的时候 / 자고 있는 동안	2002/07
盐田千春 / 시오타 치하루	1972 -	睡觉的时候 / 자고 있는 동안	2002/07
盐田千春 / 시오타 치하루	1972 -	心理创伤/日常 / 트라우마/일상	2008
奇奇·史密斯 / 키키 스미스	1954 -	黑暗 / 어둠	1997
米罗斯瓦夫·巴尔卡 / 미로스와프 바우카	1958 -	φ51x4, 85x43x49 / φ51x4, 85x43x49	1998
安塞尔姆·基弗 / 안젤름 키퍼	1945 -	星空 / 별이 총총한 밤하늘	1995
荒川修作 / 아라카와 슈사쿠	1936 - 2010	被抗生物质和子音夹在中间的爱因斯坦 / 항생물질과 자음 사이의 아인슈타인	1958-59
荒川修作 / 아라카와 슈사쿠	1936 - 2010	韦克斯曼的胸 / 와스만의 가슴	1958-59
荒川修作 / 아라카와 슈사쿠	1936 - 2010	奥帕林博士的祈祷 / 오파린 박사의 기도	1958-59
荒川修作 / 아라카와 슈사쿠	1936 - 2010	作品 / 작품	1960
石内都 / 이시우치 미야코	1947 -	Mother's 25 MAR 1916 #46 / Mother's 25 Mar 1916 #46	2000/04
石内都 / 이시우치 미야코	1947 -	Mother's #6 / Mother's #6	2002/04
石内都 / 이시우치 미야코	1947 -	Mother's #14 / Mother's #14	2002/05
石内都 / 이시우치 미야코	1947 -	Mother's #24 / Mother's #24	2002/04
石内都 / 이시우치 미야코	1947 -	Mother's #49 / Mother's #49	2002/05
<b>II 与作者 / 작가와 함께</b>			
吉田克朗 / 요시다 가즈로	1943 - 1999	触“身体—63” / 촉 “몸—63”	1989
吉田克朗 / 요시다 가즈로	1943 - 1999	触“身体—65” / 촉 “몸—65”	1989
狗卷贤二 / 이누마키 겐지	1943 -	作品92-12 / 작품92-12	1992
狗卷贤二 / 이누마키 겐지	1943 -	作品92-17 / 작품92-17	1992
狗卷贤二 / 이누마키 겐지	1943 -	作品92-18 / 작품92-18	1992
狗卷贤二 / 이누마키 겐지	1943 -	作品92-19 / 작품92-19	1992
狗卷贤二 / 이누마키 겐지	1943 -	作品92-28 / 작품92-28	1992
石原友明 / 이시하라 도모아키	1959 -	UNTITLED (#195) / UNTITLED (#195)	1998
石原友明 / 이시하라 도모아키	1959 -	UNTITLED (#201) / UNTITLED (#201)	1999
村上友晴 / 무라카미 도모하라	1938 -	无题 / 무제	1993-94
<b>III 向天空 / 천공으로</b>			
日高理惠子 / 하다카 리에코	1958 -	叶光 / 햇빛에 반짝이는 잎	1983
日高理惠子 / 하다카 리에코	1958 -	叶光(图画) / 햇빛에 반짝이는 잎(드로잉)	1983
日高理惠子 / 하다카 리에코	1958 -	抬头望树 V / 나무를 우러러보고 V	1991
日高理惠子 / 하다카 리에코	1958 -	抬头望树 V(图画) / 나무를 우러러보고 V(드로잉)	1991
福斯托·梅洛蒂 / 파우스토 멜로티	1901 - 1986	为了雕刻的图画 / 조각을 위한 드로잉	c.1959
福斯托·梅洛蒂 / 파우스토 멜로티	1901 - 1986	为了雕刻的图画 / 조각을 위한 드로잉	c.1959
福斯托·梅洛蒂 / 파우스토 멜로티	1901 - 1986	小树 / 어린 나무	1965
福斯托·梅洛蒂 / 파우스토 멜로티	1901 - 1986	图画 / 드로잉	1976
福斯托·梅洛蒂 / 파우스토 멜로티	1901 - 1986	图画 / 드로잉	1977
托马斯·迪曼德 / 토마스 데만트	1964 -	从树叶空隙照进来的阳光 /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	2002
托马斯·施特鲁特 / 토마스 슈트루트	1954 -	涩谷的十字路口 / 东京 / 시부야 교차점, 도쿄	1991
杉本博司 / 스기모토 히로시	1948 -	波罗的海、吕根岛 / 발트 해, 뤰겐 섬	1996
畠山直哉 / 하타케야마 나오야	1958 -	Atmos #03407 / Atmos #03407	2003
畠山直哉 / 하타케야마 나오야	1958 -	Atmos #07303 / Atmos #07303	2003
米田知子 / 요네다 도모코	1965 -	空地 I — 从市内最大的临时住宅瞭望震后重建住宅 / 비어있는 땅 I — 시내 최대 재해민 임시주택 철거부지에서 재해공영주택을 보다	2004
米田知子 / 요네다 도모코	1965 -	空地 II — 市内受灾最严重的区域 / 비어있는 땅 II — 시내의 최대 피해 지역	2004
米田知子 / 요네다 도모코	1965 -	公园 — 避难所旧址 市内最大的受灾区域 / 공원 — 피난소 철거부지: 시내의 최대 피해 지역	2004
米田知子 / 요네다 도모코	1965 -	园子 — 地基重建而被清除 市内最大的受灾区域 / 정원 — 재개발 공사와 재난 피해로 인해 잘려나가고 지나치게 우거진 부지	2004
米田知子 / 요네다 도모코	1965 -	河一 — 两边是临时住宅的旧址, 前方远处可以看到震后重建住宅 / 강 — 좌우강변의 재해민 임시주택, 강 저편의 재해공영주택을 보다	2004
爱德华·鲁沙 / 에드워드 루샤	1937 -	零 / 제로	1985
伊利亚·卡巴科夫 / 일리야 카바코프	1933 -	如何与天使相遇 / 천사 만나는 법	1999
帕纳马朗科 / 파나마렝코	1940 -	四触发器(升力发电机) / 4개의 플립 플롭(양력 발생기)	1990
帕纳马朗科 / 파나마렝코	1940 -	四大触发器 / 4개의 큰 플립 플롭	1990
帕纳马朗科 / 파나마렝코	1940 -	四大触发器 / 4개의 큰 플립 플롭	1990
安齐重男 / 안자이 시게오	1939 -	戈登·马塔-克拉克 1975年10月15号 巴黎 / 고든 마타 클락, 1975년 10월 15일, 파리	1975/98
野村仁 / 노무라 히토시	1945 -	A Spin in Curved Air(在弯曲大气中的自转) / A Spin in Curved Air(굽은 대기 중에서 자전)	1981
<b>常设展示作品 / 상설전시작품</b>			
须田悦弘 / 스다 요시히로	1969 -	郁金香 / 르립	2006
高松次郎 / 다카마츠 지로	1936 - 1998	影子 / 그림자	1977
胡安·米罗 / 호안 미로	1893 - 1983	纯真笑容 / 해맑은 웃음	1969
亚历山大·考尔德 / 알렉산더 칼더	1898 - 1976	伦敦 / 런던	1962
亨利·摩尔 / 헨리 무어	1898 - 1986	刀刃 / 나이프 엣지	1961/76
马里诺·马里尼 / 마리노 마리니	1901 - 1980	舞者 / 댄서	1949

展出作品可能会出现变更。/ 출품작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